

정체(停滯)되지 않는 정체성(正體性)을 향하여

The Stream of Identity

부대진 / 진아종합건축사사무소
by Bou Dae-Jin

2002년 가을 한국건축문화대전 심사를 맡으면서 주어진 주제는 한국 도시 건축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 잡지 등을 읽어 봐도 “한국 도시 건축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본다.(필자주)

정체성은 철학적인 문제다

정체-성(正體性) 「명」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위의 사전적 의미 만으로는 명쾌한 정체성의 뜻을 잘 모르겠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한국 도시 건축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한국 도시 건축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무척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모호한 것을 회복해야 한다니...

그렇다면 왜 필자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체성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탁석산씨의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인용해 보겠다.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를 생각해 보자. 백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테세우스의 배가 있다.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다른 조각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부분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되어 결국엔 백 조각 모두를 다른 조각으로 대체했다. 이 경우 새로 보수된 배는 원래의 배와 동일한 배인가, 아닌가? 즉 모든 조각을 대체했음에도 원래의 배는 정체성을 유지하는가의 문제이다. (중략) 이것이 정체성 혹은 동일성의 문제라 불리는 전형적인 형이상학의 문제이다. 이쯤하면 누구나 이 문제가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¹⁾

좀 더 발전시켜 보자. 테세우스의 배를 타고 부산에서 제주도로 출발했다. 이때 백 개의 조각을 싣고 출

1)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문고 - 우리시대, 2000년 4월 27일, page31

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 위에서, 백 개의 조각을 새로운 조각으로 대체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원래의 배에서 나온 조각은 별도로 조립을 해서 이제 두개의 배가 제주도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배가 출발 당시의 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도착한 두 배는 같은 배인가?

정답은 없다. 지난 2500년 동안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인류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름대로 정체성의 의미를 정하면 그만이다. 특히 건축가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의미를 정하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다

이번에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보자. 배의 보수 공사를 맡은 사람이 건축가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건축가는 배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건축가는 배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다른 조각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는 1년 10일간 떠다녔다. 그런데 이 기간을 100년으로 늘려 가정해 보자. 100년 동안 동물들이 100배로 번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원래의 방주의 모습을 유지하면 침몰한다.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가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가?

다시 테세우스의 배로 돌아가보자. 그런데 배 안에는 더 가볍고, 강한 새로운 재료와 기존의 재료 모두 있다고 가정해 보자. 건축가가 원래의 배와 같은 재료로 새로운 조각을 만드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길인가? 백 개의 조각을 모두 원형과 같은 재료로 대체한 건축가는 배의 정체성을 지켰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재료를 쓰는 것도 정체성과는 무관하지 않을까?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변하지 않는 것은 보수 공사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 뿐이다. 즉, 변화만이 불변한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있다. 이 문제를 풀어 보기 위해서 몇 파리시와 서울시를 살펴본다.

파리시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테세우스의 배와 유사하다. 도시를 이루는 건물들은 배의 조각과도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각(건물)은 변화를 겪는다. 짓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19세기 서양 주요 도시는 100년 동안 떠있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다.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 도시의 크기와 형태로는 도저히 수용이 힘들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유럽과 미국에서 대규모 도시(Metropolis)의 탄생을 가져왔다. 꼬르뷔지에를 비롯한 20세기 초반의 서양 건축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도시화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보다 낫은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했다. 그들의 작업이 정체성 확립에 기여 했는가? 만약 기여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는가? 한번 살펴 보자.

꼬르뷔지에가 본 세계 도시의 인구 증가 ²⁾

(단위: 명)

	1800 년	1880 년	1910 년
파 리	647,000	2,200,000	3,000,000
런 던	800,000	3,800,000	7,200,000
베 를 린	182,000	1,840,000	3,400,000
뉴 욕	60,000	2,800,000	4,500,000
서 울*	190,000	200,000	280,000

* 서울 자료는 필자가 비교를 위해 추가한 것임.

2) Le Corbusier, The city of tomorrow and its planning, Dover, 1929년, page94

적어도 위의 서양 도시들은 정체성이 분명한 도시들이라 가정하자. 어떻게 조각들이 변하는 테세우스의 배가, 인구가 늘어나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했는지 보자. 여기서는 지면상 파리의 예만 들어 보겠다.

19세기 파리(Paris)는 위에서 언급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 100년 동안 60만의 인구가 300만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건물이 신축 되었다. 물론 건물들의 형태와 재료도 18세기와는 다르게 지어졌다. 새로운 조각이 삽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의 크기 자체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파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21세기 파리는 950만 명의 광역시로 확장되었다. 도심 외곽으로 도시가 추가 확장되었지만 중심지에는 몇몇 건물만이 추가가 되었다. 아직도 파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

어떻게 60만 명에서 950만 명으로 늘어난 노아의 방주(파리시)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을까?

그 대답은 다음의 건물들의 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연 도	주 요 건 축 물
1889년	에펠탑 (Eiffel Tower)
1937년	빨레 드 샤이롯 (Palais de Chaillot)
1958년	파리 외곽 라데팡스 개발 시작 (Work starts on La Defense)
1969년	르 할레 개발 (The old central food market at Les Halles is moved to Rungis, outside Paris)
1977년	뽕피두 센터 (Centre Pompidou)
1986년	오르세이 미술관 (The Orsay Museum) 라빌레트 공원 과학원 (Cite des Sciences at La Villette)
1989년	루브르 피라미드 (Louvre pyramids) 바스티유 오페라 (Opera Bastille)
1996년	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 de France)

지난 100여년 동안 파리 중심지에 지어진 주요 건축물들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위의 건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특히 파리 도심 외곽에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와 오피스 건물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파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는 위의 건물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의 정체성과 주요 부품 (펜티엄 프로세서)

사무실 구석엔 오래된 286 컴퓨터가 있다. 사람들은 “저건 컴퓨터도 아니다.”라고 한다. 이제는 쓰기에는 너무 느린 프로세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외관상의 모습은 지금의 최신형 펜티엄 컴퓨터와 비슷하지만 이미 컴퓨터로서의 정체성은 상실했다. (컴퓨터도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혁신적으로 변하는 주요 부품의 quality’에 있다. 컴퓨터에 있어서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혁신적으로 변하는 주요 부품은 프로세서이고, 도시에 있어서는 주요 건물들이다. 주요 건물들이 혁신적이고 높은 quality로 지어질 때 정체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사무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와 별 차이가 없다.

앞에 언급한 파리의 주요 건물들의 특징 또한 혁신과 높은 quality에 있다.

앞에서 변화만이 불변하며,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파리는 특히 주요 건축물에 있어서 혁신과 quality를 통해서 변화를 하고 있다. 정체성은 혁신과 높은 quality의 문제인 것이다.

서울의 정체성

서울은 도시화가 서양보다 약100년 정도 늦게 이루어졌다. 600년 서울 역사 중에 첫 500년은 인구가 200,000 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 당시 지어진 경복궁, 창덕궁, 사직, 종묘와 주요 도로인 세종로와 종로는 인구 200,000명 도시에 맞게 지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적이고 양질로 지어졌다. 1930년까지도 인구는 350,000 명 수준이었다. 그 이후 60년 동안 인구는 1,00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서울의 건물들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

고르뷔지에 100년 후 서울의 인구 증가 ³⁾

(단위: 명)

	1900 년	1980 년	2010 년
서울	200,000	8,360,000	12,000,000(?)

1428년 서울 인구는 100,000명으로, 첫 500년 동안 인구 변화는 미미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인구 유입은 엄청난 양의 건축을 의미한다. 20만 명을 위한 작은 도시에 1,000만 명 이상을 위한 도시 건축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두 지어졌다는 이야기다. 숫자만 비교해도 근대화 이전의 건축이 2%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라는 숫자는 단지 인구대비 주거 건축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숫자이다. 근대화 이후에 생긴 각종 산업 및 상업 시설을 생각하면 근대화 이전의 건축이 1%를 넘을 수 없다.

테세우스의 배가 새로운 조각들로 100배 이상 커진 것이다. 100배로 커진 서울(테세우스의 배)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근대화 이전 1%에 해당하는 건물은 일부 궁궐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이들 아주 오래된 전통 건축물들이 서울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혁신적이고 높은 quality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지어진 건물들이 정체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다. 주요 건물들이 혁신적이지 못하고 낮은 quality 이기 때문이다. 파리의 주요 건물들과 비교해도 알 수 있고, 몇 해전 지어진 신동경 시청이나 베를린의 국회의사당과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난 60여년간 도시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주요 건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 이전에 지어진 혁신적이고 높은 quality의 몇몇 전통 건축물들이 아직까지도 서울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성과 정체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

‘한국 도시 건축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국 혁신적이고 높은 quality의 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요 건물들을 지을 때 이는 중요하다. 의미다.

정체성은 정체(停滯)된 생각이나 형태에 있지 않다. 정체성의 본질은 변화에 있다. 어떻게 변화느냐의 문제이다. 정체되지 않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ㄷ

3) 서울특별시 자료